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앞: 그림: 히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부자인 젊은 관원의 일부.
뒤: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수퍼스톡, 의심하는 도마.



친구들 표지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그분의 빛 안에서, 밀존드 출판사 제공.

일반

- 2 살아 계신 그리스도 — 사도들의 간증
- 4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심 러셀 엠 넬슨 장로
- 20 우리의 마음이 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줌 몰리 짐머맨 라슨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함
- 30 키리바스의 바다새들 알 발 존슨
- 42 가족 재정 지침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48 안식일의 가족 시간 카렌 에프 처치

청소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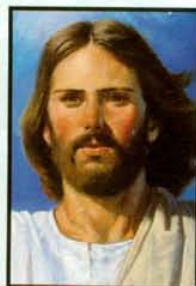
- 24 찬송가: 말일의 시은 청소년
- 26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공과에 좀더 많은 흥미를 갖게 될까요?
- 29 물론 메시지: 그분의 이름을 공경함
- 40 그녀는 나의 자매임 스베틀라나 누츠도바

친구들(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켄틴 엘 쿡 장로
- 4 이야기: 항상 기억하라, 코너
- 6 신약 성서 이야기: 신약 이전
- 11 노래: 성찬 벤자 와이 왓킨즈
- 12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 앤 제미슨
- 14 친구 사귀기: 미셸 무쿤드, 피지 라우토카



30쪽 참조



4쪽 참조



친구들, 14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피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월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에이트, 닐 메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킳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립

편집인: 말린 케이 쉰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파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톰니

그래픽 책임자: 엘런 알 로이브로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카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빌 폰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배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엘 갠 가와시키

미술 책임자: 스킳트 벨 캠펠

선임 디자이너: 세리 록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즈 커비, 제이슨 엘 워

포드, 디나 엘 쇼펜슨

디지털 표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409호, 제 37권, 제 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0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진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파 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파냐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시모이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pril 2000 No.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음

러시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월간으로 출판되는 리아호나를 아주 반기워합니다. 이 잡지는 첫 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속삭여 주십니다. 이제 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나탈리아 블라디미로브나 레오노바
러시아 모스크바 북 지방부
크라스노크레스넨스키 지부

주님으로부터 온 우편물

저는 우편함을 열어 보고 리아호나(독일어판)가 거기에 들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온 우편물 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주제에 관한 모든 새로운 기사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그분들을 위해 전세계에서 일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그래픽 디자인도 제게 감명을 줍니다. 세상의 다른 출판물과 이 잡지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저는 기쁘게 후자를 택합니다.

아돌프 제이 이글세더
독일 뮌헨 스테이크
심박호 지부

살아 계신 예언자의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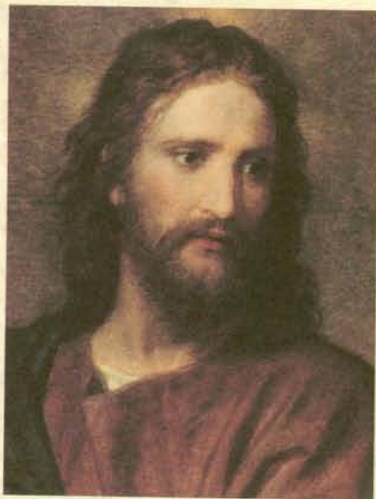
저는 18세이고 말일성도가 된 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곳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여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말로 세가 축복과 경험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들의 간증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분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비어 이 피 레즈 글레노
콜롬비아 바란킬라 엘 카르멘 스테이크
카르멘 와드

편집자 주: 이번 호에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사도들의 간증" (2~3쪽)이 대판장단 메시지를 대신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4월에는 이 메시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부터 우리는 4개의 새로운 언어를 더 추가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4월호는 아르메니아어, 헐리게이어,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어의 창간호가 됩니다. 또한 이번 호는 일로카노어로는 처음으로 출판되는 일반호가 됩니다. 일로카노 구독자들은 2000년 1월에 연차 대회 특집호를 받았습니다. 아르메니아어는 주로 아르메니아와 주변 국가에서 사용되고, 헐리게이어와 일로카노어는 필리핀에서 사용되며, 마다가스카르어는 마다가스카르의 언어입니다. 금년 후반기에는 몽골어의 창간호가 출판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규 구독자들이 리아호나 가족이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 (사도행전 10:38)셨고 오히려 그 때문에 멸시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관한 진리와 전세의 실재와 지상 생활의 목적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이들과 딸들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정죄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

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 (고린도전서 15:20) 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방문 하셨으며,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들” (요한복음 10:16)에게도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현대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요셉 스미스에 게 나타나시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9)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 (교리와 성약 110:3~4)

이 예언자는 그분에 관해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

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 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76:22~24)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 (에베소서 2:20) 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0:5)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애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대관장단

James A. Linney
Thomas M. Monson
James E. Faust

2000년 1월 1일

십이사도 정원회

Boyd K. Packer
L. Tom Perry
David A. Bednar
Neal A. Maxwell
Russell M. Nelson
Dallin H. Oaks

M. Russell Ballard
Joseph B. Wirthlin
Richard G. Scott
Robert D. Hales
Jerry L. Holcomb
Henry A. Eyring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심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들 각자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고 섬기며 그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984년 4월에 제가 병원의 수술실을 떠나 성전의 위층 방(대관장단과 사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들어가는 부름을 받았을 때 인간의 심장에 대한 저의 평생에 걸친 관심은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름을 구한 적은 없었지만 이전에 외과 의사로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마음을 고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신뢰와 주님의 대표가 되는 특권에 합당하게 되도록 겸손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름 받고 지지 받아 성임된 한 사람, 즉 우리 주님의 특별한 열 다섯 증인 중 한 사

요한의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라고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람으로서 저는 물문경에 나오는 다음의 중요한 주제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니파이서 25: 26)

우리는 그분을 이 지상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분들 중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공경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수많은 이름과 칭호와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허락된 지면만으로는 그분 생애의 모든 중요한 면들을 충분히 고찰해 보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러한 중대한 책임 중 열 가지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똑같이 신성하게 중요한 것이므로 그 순서에 의미를 두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 창조주의 책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의 칭호는 “말씀”(요한복음 1:1; 요셉 스미스역, 요한복음 1:16 참조)이었습니다. 희랍어 신약에서 말씀은 로고스 또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용어는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여러 하나님께서 내려가 인간을 그들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더라.”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또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라고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교리와 성약 93:21 참조)

현대의 계시를 통해 많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예수님이 맡으신 책임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하니, 이는 그가 말씀 곧 구원의 사명을 지니신 자시요,

“세상의 빛과 구속주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세상에 오신 진리의 영이시라. 그 안에 사람의 생명과 빛이 있느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교리와 성약 93:8~10; 고린도전서 8:6; 히브리서 1:2; 니파이서 9:5; 니파이삼서 9:15; 교리와 성약 76:23~24; 88:42~48; 101:32~34 참조)

힐라맨서도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힐라맨서 14:12)라고 선언함으로써 비슷한 간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느니라..

“또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니, 말씀은 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니라.

“또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모세서 1:31~33)

이 거룩하신 창조주는 우리들 각자가 독특하고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인간의 몸과 비슷한 점을 지닌 육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잘 교육받은 음악가가 그 스타일과 구성을 통해 교향곡의 작곡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잘 교육받은 외과 의사도 해부학적인 스타일과 구조의 유사성을 통해 인류의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유사성은 똑

같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신성한 창조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와 깊은 영적인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내려가 인간을 그들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더라.

“이에 여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는 저들을 축복하자”(아브라함서 4:27~28)

참으로 그분들은 우리들 각자를 축복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스스로 회복될 수 있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노후된 세포를 대체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의 육신은 독특하고 개별적인 각자의 특성을 지닌 우리 자신과 같은 종을 번식시킬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병자를 고칠 수 있고(니파이삼서 9:13; 교리와 성약 35:9; 42:48~51 참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요한복음 9:1~11 참조),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이사야 35:5; 니파이삼서 26:15 참조), 죽은 자를 살리시는(마태복음 9:23~26; 요한복음 11:5~45 참조) 위대한 의원(마태복음 9:12 참조)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일에 그분은 신앙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주는 규범, 즉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건강에 대한 규범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

지의 성스러운 명을 받으신 창조주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여호와이셨습니다.(출애굽기 6:3; 시편 83:18; 이사야 12:2; 26:4 참조) 이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또한 현대의 경전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모로나이서 10:34; 교리와 성약 109:68; 110:3; 128:9 참조) 여호와는 히브리어 *하아*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있다", 즉 "존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원문에서는 *하아*라는 말의 형태가 "스스로 있는 자"(출애굽기 3:14 참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한 이름으로 *자존자(스스로 있는 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9:1; 38:1; 39:1 참조) 구약에 나오는 다음의 흥미 있는 대화를 읽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구하지 않았던 거룩한 임무 즉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임무를 지명 받았습니다. 그 일은 시

내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름을 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자신의 부름에 대해 부적절

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우리의 창조주께서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귀머거리의 귀를
들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출애굽기 3:11, 13~15)

여호와와는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의 전세에서의 신분을 위해 온유하고 겸손하게 선택한 바로 이 이름, 즉 “스스로 있는 자”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이 이름을 때때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자들에게 하셨던 간결한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 가이바에게 하신 그분의 대답 속에 포함된 이중적인 의미를 주목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마

가복음 14:61~62)(주: ‘내가 그니라’는 위에서 ‘자존자’ 또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했으며, 영어로는 마찬가지로 표기하나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가 있음)

그분은 그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자신의 혈통과 이름 모두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면식에 대해 조롱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한복음 8:5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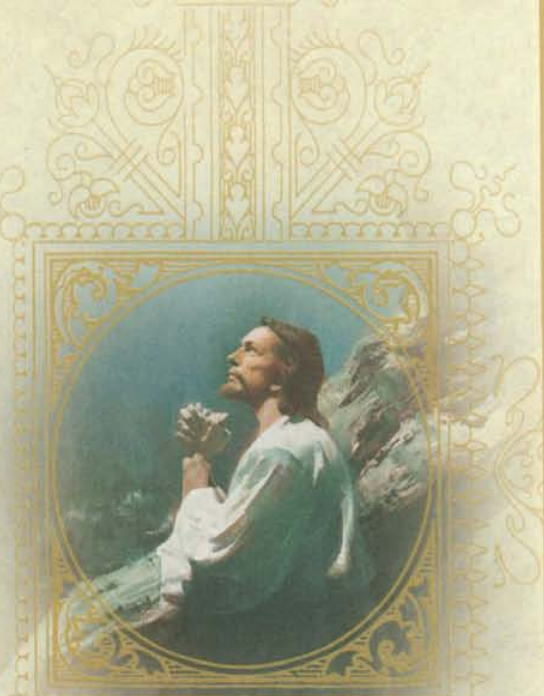
구약의 하나님이시자 위대한 자존자이신 여호와와는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활하신 몸으로서 친히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간증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서 계시되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교리와 성약 110:2~4; 교리와 성약 76:23 참조)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 곧 ‘위대한 자존자’인 여호와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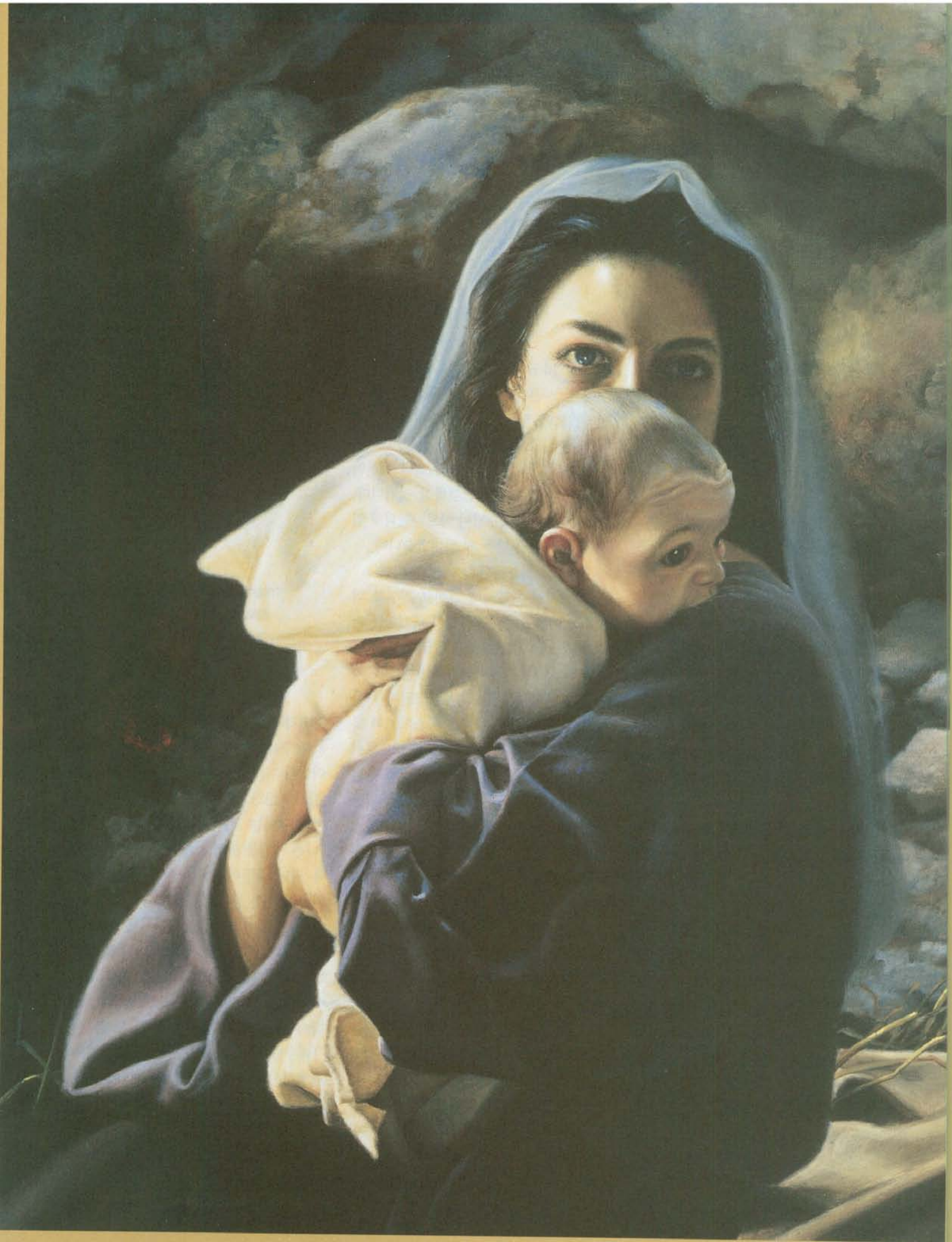


“[예수님은] 만 인류를 위하여 중재하시어 변호하시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아버지에 대한 변호인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요한일서 2:1; 교리와 성약 29:5; 32:3; 45:3; 110:4 참조) 변호인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한 소리” 곧 “다른 사람을 위해 간청하는 사람”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비슷한 용어로 경전에서 중보자라는 말도 사용됩니다.(디모데전서 2:5; 니파이서 2:28; 교리와 성약 76:69 참조) 우리는 물문경을 통해 중재하고 조정해 주는 이 책임이 그분이 탄생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미 예견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 인류를 위하여 중재하시어 변호하시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니파이서 2:9)

이 사명은 예수님의 연민에 찬 중재 기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음속으로



그분이 무릎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그려 보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운 기도 내용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증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그분의 느낌을 느껴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요한복음 17:6~9)

그분은 또한 신약 곧 새 언약의 증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15; 12:24 참조)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인과 증재자와 증보자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의 비할 바 없는 이해력과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엘마서 7:12 참조)

임마누엘

예수님은 약속된 임마누엘로 예임되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놀라운 예언을 상기해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단지 있을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기에게 그러한 터무니없는 이름을 주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칭호 즉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은 잇달아 신약성경과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서도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23; 니파이서 17:14; 교리와 성약 128:22 참조)

임마누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14, 18; 3:16 참조)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누가복음 1:32; 35절도 참조)이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열두 번 이상의 성구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엄숙하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러한 엄숙한 간증은 종종 인류에게

그분의 경건한 아들의 소리를 듣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호소로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17; 17:5; 마가복음 1:11; 9:7; 누가복음 3:22; 9:35; 베드로후서 1:17; 니파이서 31:11; 니파이삼서 11:7; 21:20; 교리와 성약 93:15; 모세서 4:2; 요셉 스미스서 2:17 참조)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통해 가장 불가능해 보이던 이사야의 예언(이사야 7:14 참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에 관한 것은 니파이에게도 알려졌는데 그는 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보는 처녀는 육체를 입고 오실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하나님의 양,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일서 11:18, 2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불멸성과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는 필멸성과 죽음의 가능성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창세기 3:15; 마가복음 6:3 참조)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한복음 10:17~18)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의 별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목적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들이 이따금 “아버지”로 언급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남자에게 사용되는 그 호칭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아들이지만 그의 상황에 따라 아버지나 형이나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신원이나 목적 또는 교리에 관해서 혼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을 위한 아버지이시며 경전에서는 “만물의 아버지”(모사야서 7:27; 15:3; 16:15; 힐라맨서 14:12; 이더서 3:14 참조)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시절의 대관장단이 다음과 같이 가르쳤던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얻거나 앞으로 육신을 얻을 영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도 그런 영들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들이 엘로힘의 아들들과 딸이었던 것처럼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6권 [1965~1975년], 5:34)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차이를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

규적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늘과 지상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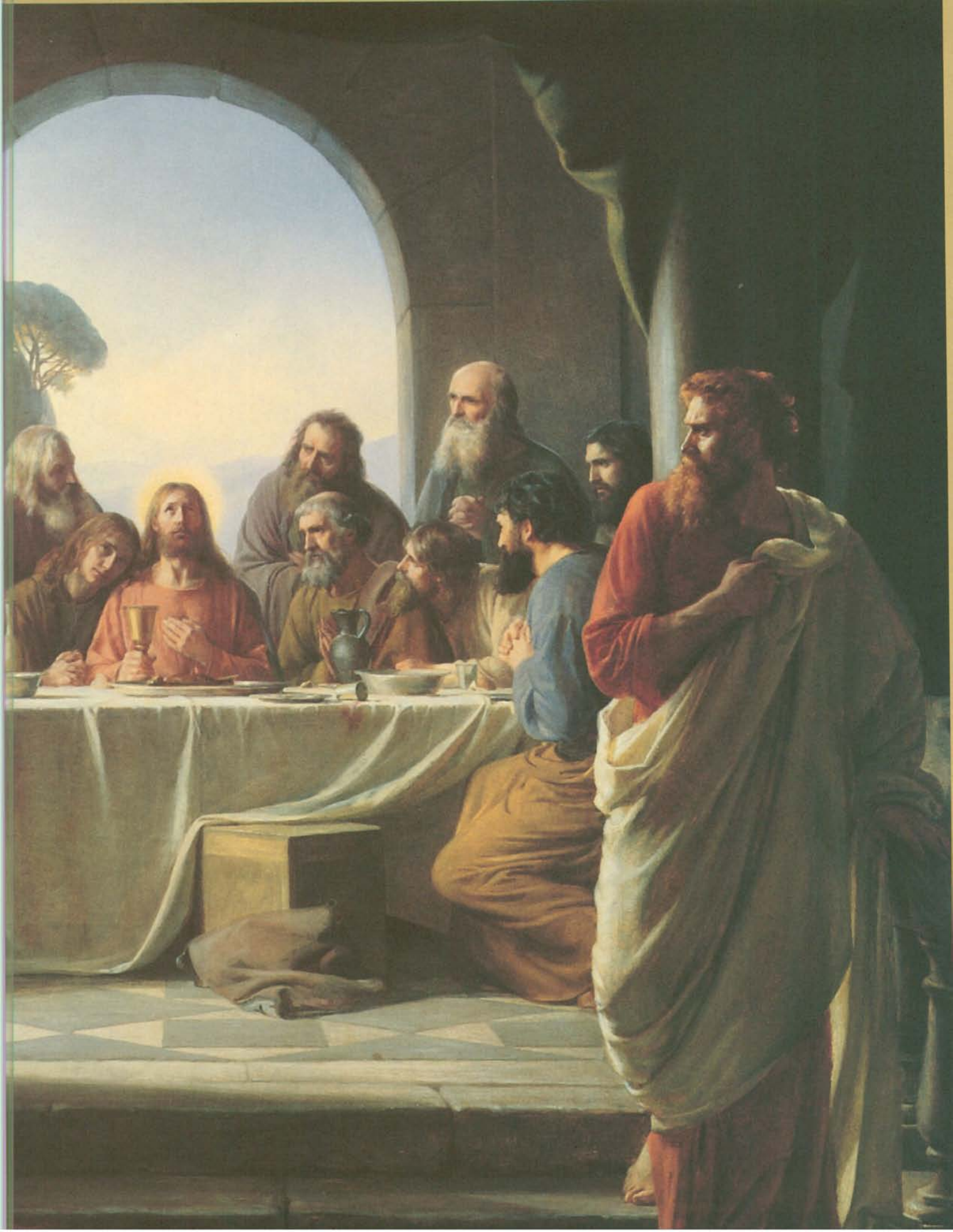
기름 부음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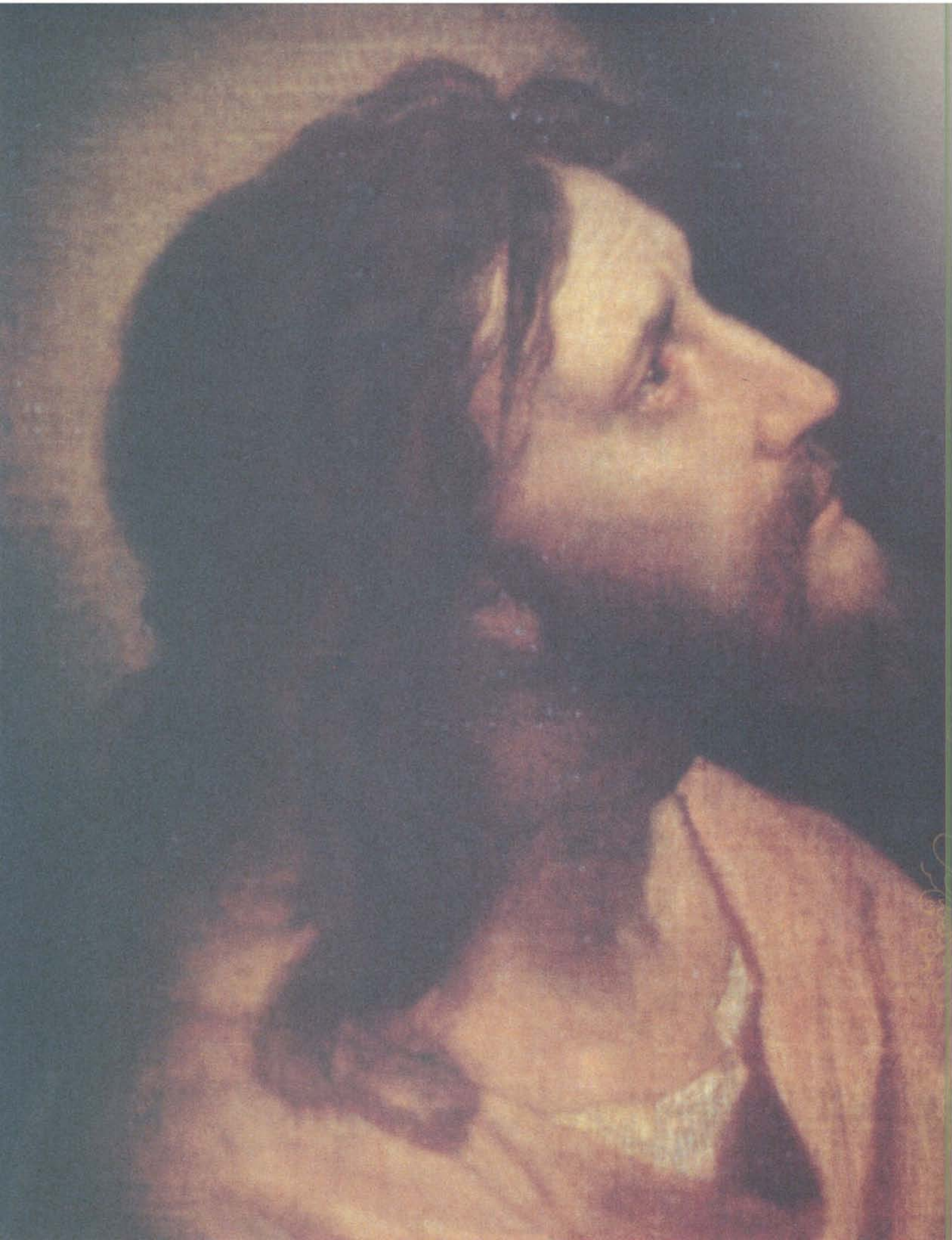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사도행전 10:38) 예수님은 기름부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그분은 두 가지 특별한 칭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 한가지는 메시아로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데 그것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희랍어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일컬어지는 바 그것은 그분이 인류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개인적인 대표가 되도록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경전은 그리스도가 하늘 아래서 구원을 가져올 유일한 이름이라고 선언합니다.(니파이이사 25:20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칭호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그 숭고한 책임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림: 칼 헤인리히 뮐러, “복음의 만찬, 제1차 세계대전, 프레스코, 로마, 1914년. 그림: 칼 헤인리히 뮐러, “복음의 만찬, 제1차 세계대전, 프레스코, 로마, 1914년.”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

구세주와 구속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와 구속주가 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49:26; 니파이일서 10:5 참조)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양(니파이일서 10:10 참조)으로서 세상의 죄를 위한 산 제물(요한복음 1:29 참조)로 흠 없고 점 없는 자신(베드로전서 1:19 참조)을 바치셨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분은 그 거룩한 책임을 복음의 의미와 연관시키셨는데 다음과 같은 힘찬 구절로 그것을 묘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니파이삼서 27:13~14; 니파이삼서 27:15~22 참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친히 복음을 정의 하셨습니다. 영어에서 이 용어는 고대 영어 “*godspell*”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좋은 소식”이란 의미입니다. 영어판 말일성도 성경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 그들을 무덤에서 구속하여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다. 이 속죄는 예수님이 전세에서 임명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분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성취하셨다.” (“*Gospels*”, 682쪽)

예수님의 속죄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분의 강령을 예언해 왔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시기 약 30년 전에 씌어진 힐라멘의 기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가 오시어 세상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힐라멘서 5:9)

그분의 속죄는 우리들 각자에게 대단히 개별적인 방법으로 축복해 줍니다. 예수님의 다음 설명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며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 까지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 (교리와 성약 19:16~19)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또 우리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각자의 회개를 조건으로 속죄하심으로써 천국 회의에서 하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세주와 구속주로서





의 그분의 책임은 창조주로서의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기 위해 저는 제가 대영 박물관의 도서관을 두루 뒤지던 중에 어느 날 발견한 런던의 진기한 책에 있던 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어 원본을 20세기의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티모시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서 그는 서기 385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기록은 아담의 창조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전세의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께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아담을 우리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만들고 그에게 숨을 불어넣지 않은 채로 40 주야를 그대로 두었노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면 틀림없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리라.” 고 말하며 매일 그에 대하여 탄식하였노라. 그리하여 나는 아버지께 가로되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소서. 내가 그를 위해 변호인이 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그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면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 그를 구속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기 전에 그를 위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리라.’ 이에 내가 아버지께 가로되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소서. 내가 그의 변호인이 되어 세상으로 내려가 당신의 명을 이루겠나이다.’ 하였더라.”(이 에이 윌리스 벗지 편집 및 번역, “아버통에 관한 설교” 중에서, 콤포트 교도의 순교 등, 상이집트 방언으로 씌어짐(1977년); 모세서 3:7: 6:8~9, 51~52, 59 참조)

변호인과 구세주와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의 책임은 전세의 영역에서 미리 결정되었고 그분의 속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요기 19:25~26; 마태복음 1:21; 아브라함서 3:24~27 참조) 우리의 책임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

구세주와 구속주로서의 주님의 지위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심판주로서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인용했던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후 그 상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혀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들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렸던 것같이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약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저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리라.”(니파이삼서 27:14~15)

물론 경은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더욱 잘 밝혀 주고 있습니다. 성전 엔다우먼트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공의의 법정 입구에 다가갈 때 누가 그것을 직접 주재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시느니라. 주께서 그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며 그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길에 이를 자가 없나니, 주 하나님 이 그의 이름이시매, 아무도 그를 속이지 못하리도다.

“누구든지 주께 두드리면 열어 주실 것 이로되”(니파이서 9:41~42)

경전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



그림: 존 스킵트, 최후의 심판

들을 심판하실 때 사도들의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니파이일서 12:9; 교리와 성약 29:12 참조) 심판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교리와 성약 137:9 참조)은 물론 우리의 행위를 “명백히 기억” (엘마서 11:43)하고 “모두 기억” (엘마서 5:18)하게 되는 상태로 심판대에 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본되신 주

주님의 또 다른 책임은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5; 14:6; 베드로전서 2:21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본이 되시는 그분의 사명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 (니파이삼서 18:16; 27:27; 니파이일서 31:9, 16 참조) 예수님은 산상 수훈을 통해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

라.” (마태복음 5:48)는 훈계를 과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를 지니고 사실 동안 죄와 흠이 없으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육체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미래에 있을 일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조차도 끝까지 건디셔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보다 덜 해도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다시 그분의 본(모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완전한 분으로 포함시키셨습니다. “내가 이르거니와,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니파이삼서 12:48)

여러분은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열쇠를 잘못 둔 적은 없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마무리하려고 다른 방으로 건너갔을 때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내가 사람들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렸던 것같이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약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하라는 희망을 표하신 것 때문에 부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발전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릇된 습관이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서 잘못이 없고 완전한 행동들만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상을 하도록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의 모든 가능성을 깨닫고 그분





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때 우리의 육신은 병들거나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가운데 부활과 승영과 완전함과 온전함이 다가올 삶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함에 대한 그런 귀중한 약속은 주님의 속죄와 모범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복천년의 메시아

주님의 궁극적인 책임 중 하나는 여전히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복천년의 메시아로서 지배자의 신분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구의 표면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이사야 40:4) 그런 다음 예수님이 지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은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널리 알려질 것이며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이사야 40:5)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

그분은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본이 되시는 그분의 사명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

그분의 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널리 알려질 것이며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사야 9:6)입니다. 그분은 두 개의 수도 즉 하나는 옛 예루살렘(예레미야 3:17; 스가랴 14:4~7; 교리와 성약 45:48~66; 133:19~21 참조)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대륙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신약개조 제10조: 이더서 13:3~10; 교리와 성약 84:2~4 참조)에 있는 세계의 수도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두 중심지에서 그분의 교회와 왕국의 업무를 관리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세세토록 왕노릇"((요한계시록 11:15; 출애굽기 15:18; 시편 146:10; 모사이야

서 3:5; 교리와 성약 76:108 참조)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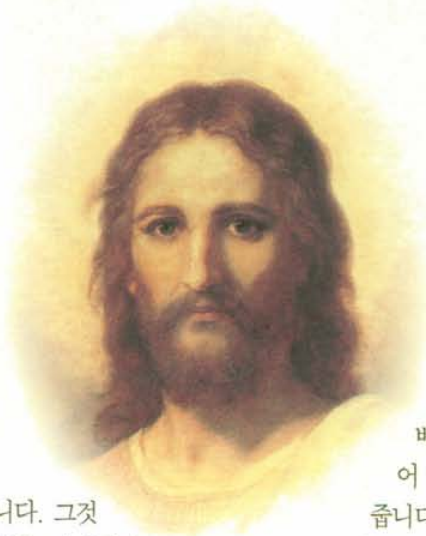
그 날에 그분은 새로운 칭호를 얻고 특별한 성도들에게 둘러싸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 알려질 것이며 그 성도들은 필멸의 세상에서 믿었던 대로 "그와 함께 [있을 자들] 곧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14; 19:16 참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많은 책임 중에서 불과 다음의 열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께 대한 변호인,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기쁨 부음 받은 자, 구세주와 구속주, 심판주, 본되신 주, 복천년의 메시아.

그분의 제자로서 여러분과 저 역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걸어다니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 뜨거운 간증을 전하는 것은 저의 거룩한 부름이자 신성한 특권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열심히 그분을 따르며 기꺼이 그분을 섬기는 데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저는 그분에 대해 엄숙하게 가르칩니다. 그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도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고 섬기며 그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우리의 마음이 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줌

물리 집어맨 라슨



거룩한 음악은 성신의 영향력을 이끌어 오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줍니다.

음 악은 만국 공통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말로서는 전달하기 힘든 깊은 느낌들을 나누게 해줍니다. 그것은 예배할 때 계시와 명상의 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종종 말씀의 권세를 능가하는 방법으로 위로하고 권고해 주는 음악의 힘에 감동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찬송가를 축하함”, *앤서인*, 1985년 11월호, 105쪽)

선교 사업을 하면서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 중 하나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수백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를 불렀던 일입니다. 내 주위의 선교사들이 가진 약동감과 의욕과 열의가 내게도 번져 왔습니다. 매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복음이 참되었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기간에 내가 느꼈던 기분을 적절하게 묘사할 순 없지만 나는 하늘에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배정 받은 지역에 도착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우리의 지구 모임과 지역 모임을 기대했는데 그 모임에서는 우리가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나는 힘을 얻었고 그것은 내가 선교 사업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활기를 얻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과 또 다른 수많은 경험을 통해 나는 예배에서의 음악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전주 음악은 교회 모임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그것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전주 음악은 우리에게

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씻어 내며 조용하게 명상에 잠길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나의 오르간 선생님이었고 30년 동안 오르간 연주자로 봉사해 왔으며 음악 책임자였던 캐서린 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주 음악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교통하여 예배의 다음 순서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주고 예배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 회중에게 단합된 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전주 음악은 흔히 회중들이 인사와 담소를 나누는 배경 음악으로서만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예배당에서의 경건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있는 공간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인사와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예배당으로 들어서면, 미묘한 영적인 교통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

“예배당에서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꾸짖지는 않을지라도 주의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경건을 통하여 계시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계시는 경건을 통하여 음”,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25쪽)

전주 음악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예배당에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의 음악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가 말했던 것처럼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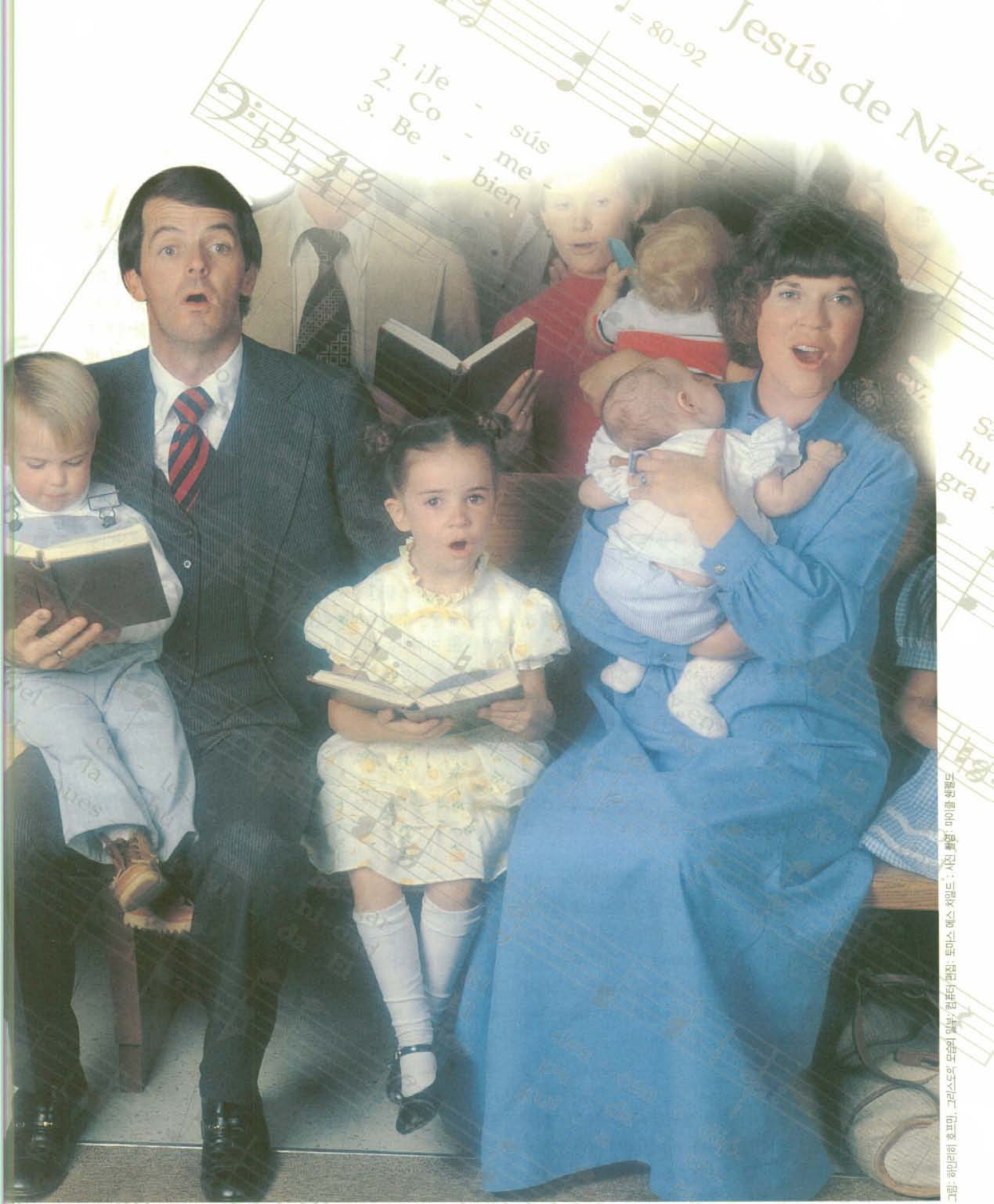


그림: 해인리서 호프만, 그리스도의 모습에 맞추어 일부 컴퓨터 편집. 토마스 메스 차임드: 사진, 불경, 마이클 샌펠드

pu
al-sión;
do-lor
ho-

악은 "...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 생각과 주의 를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도록" 하는 예배의 훌륭한 목적을 이루 게 도와줍니다. ("예배의 영", 인스트러터, 1966년 대회 특집호, 8쪽) 주님이 "외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교리와 성 약 25:12)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음악은 기도의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대관장단이 쓰신 찬송가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 습니다.

"영감을 주는 음악은 우리 교회 집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찬송가는 주님의 영을 불러들이며,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고, 회 원들을 하나가 되게 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합 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선행을 하게 하며, 간증과 신 앙을 키우며, 지친 자를 쉬게 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안해 주 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내도록 영감을 줍니다." (찬송가, 9쪽)

특별 음악 순서는 또한 우리를 교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이러 한 음악 순서를 통해 찬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관한 부름을 받은 교회 회원들은 예배에서 중요한 책 임을 맡게 됩니다. 워드 음악 책임자였을 때 나는 내가 다음 모임 을 위해 선택한 찬송가가 그 모임의 주제에 맞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워드 회원들이 강화되고 영 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문해 보 았습니다.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선정하고, 지휘 하며, 노래 부르고, 또한 반주하는 분들이 연사들보다 더 모임에 서 경건의 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6쪽) 음악 지도자와 예배 중에 선정된 음악을 발 표하는 회원들은 그 음악의 메시지가 구세주를 참되게 예배하기 에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 발표는 참여자들이 자 신의 재능을 과시할 기회로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데 참여함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봉사 하는 것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아니면 가정 방문이나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것이든 또는 음악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든 간에 참

여하는 것이야말로 회복된 복음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 쇠입니다. 패커 장로는 부모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모임에서 경건의 영을 유지하며, 회중 찬송을 부르는 데 함께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더욱 커지며 주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들에게 더 욱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6쪽)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부른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지 않거나 잘 들리도록 소리내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 중 찬송의 목적은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소 리내어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태버나클의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 중 한 명이었던 알렉산더 슈 라이너는 어떤 사람이 한 음악 책임자에게 연로한 스탠튼 형제가 교회 모임에서 틀린 음정으로 큰소리로 노래부르는 것을 들으며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물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현명한 노 지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탠튼 형제님은 훌륭 한 신앙을 가진 예배자 중 한 분입니다. 큰소리로 노래부를 때 그 분은 최고의 음악가이죠... 그분이 내는 소리에 너무 신경을 쓰시 면 음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음악과 복음", 음악과 복음 에 대한 알렉산더 슈라이너의 글에서 뽑은 내용들, 다윈 윌포드 편집[1991년], 16쪽)

우리의 음악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 마음의 의도를 아십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마음에서 우러나 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니니" (교리와 성약 25:12)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진지하게 찬송가 를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구속의 사 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 (엘머서 5:26)을 가진 우리들은, 거룩한 음악을 작곡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그 음악 을 사용하도록 명하신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예배",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12쪽)

거룩한 음악은 치유하고 영감을 주며 가르치고 교화시킬 수 있 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양시켜 주는 음악을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며 "[주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0:1~2 참조)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가정의 밤이나 교회 공과 시간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에 이 기사를 적용해 보도록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왜 말로서 잘 전달되지 못할 때도 음악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 우리가 회중 찬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세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여 주는 것입니까?

■ 우리는 일요일 모임 외에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말일의 시온 청소년

결의를 갖고 ♩ = 88-104

계창

1. 말 일 의 시 온 청 소 년 항 상 용 감 하 다
 2. 우 리 진 리로 와 두 가 치 우 관 나 조 롱 방 응 받 으 잠 나
 3. 시 리 련 으 로 두 려 우 나 절 망 을 하 으 잠 네

빛 경 의 나 청 로 는 하 운 두 고 대 눈 순 업 동 종 위 자 할 하 로 때 여 역 우 우 할 리 리 을 이 현 다 긴 신 하 다 하 네 네 네

고 악 사 귀 마 랑 한 가 하 과 우 고 거 름 배 를 해 우 가 치 면 진 고 서 우 멀 기 리 하 뻘 전 려 노 진 하 래 하 지 하 네 만 리

힘 석 말 차 말 일 계 대 의 도 잡 시 전 고 온 을 나 청 하 아 소 고 가 년 항 기 강 상 뽐 하 진 을 고 실 찾 순 하 으 결 리 리 해

작사: 수전 에반스 맥클라우드, 1945년생. © 1985 IRI

작곡: 에이레 멜로디; 편곡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앨마서 37:35-37

앨마서 53:20-21

테두리 디자인: 리처드 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함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미에서 잘 훈련된 훌륭한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명이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일입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자질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인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관계를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읽”,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3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니파이의 다음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에서 32:3) 그리스도의 말씀은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의 영감 받은 메시지 속에서 또 성신의 속삭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복음이 주는 영양분을 섭취하겠

다는 욕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채워지기 전에 ‘의에 주리고 목말라’(마태복음 5:6)야만 합니다.”(“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80쪽)

가족 경전 공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식사는 가정에서 요리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관한 가장 훌륭한 가르침도 가정 내에서 주어집니다.”(“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81쪽)

유타 주 샌디의 한 자매는 아들과 며느리와 두 살 된 손녀가 그녀의 집에서 머물렀던 때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매일 밤 손녀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 셋은 함께 침실로 가곤 했습니다. 그들이 침실로 물러간 어느 날 서너에 그들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저는 그 애들의 방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침대 위에서 각자 자기의

물문경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성경을 읽고 두 살 된 딸에게 그들이 방금 읽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방을 가득 채운 따뜻하고 감미로운 영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서의 모범을 통해 어린 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상의 천국을 잠깐 엿보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매일 말씀을 취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1895~1985)도 다음과 같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분이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때 다시금 몰두하여 경전을 상고하면 주님과과의 간격은 다시 좁혀지고 영성이 회복됩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에드워드 엘 김볼 편집[1982년], 135쪽)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앞서가신 분들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을 알고 있음” (교리와 성약 18:36) 간증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모델이 포즈를 취함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공과에 좀더 많은 흥미를 갖게 될까요?

주일학교 공과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제가 늘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들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과에 좀더 흥미를 갖게 될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

주일학교는 복음 관련 주제를 좀더 심도 있게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공과 반에서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주제와 원리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공과를 즐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재미를 느끼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공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과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자신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선 어느 주제에 대해 여러 번 토론한 바 있으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알려 주신다고 니파이는 가르쳤습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인간을 가르치리이다. 내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며, 넉넉히 가졌노라 하는 자에게서는 가진 것조차 빼앗아 버리리

라.”(니파이이서 28:30; 이사야서 28:9~13 참조)

여러분은 이 성구 끝에 있는 경고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그 성구에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알고 있는 것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왕국의 교리를 알기를 원하시며, 만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지혜와 지식이 향상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교사를 위해 수업 서두에 진지한 기도로써 시작을 하고, 수업 도중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진리를 듣고 깨우침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교사 모두가 각기 맡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구한다면, 주일학교 교사의 말이나 다른 학생들의 말을 통해 진리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공과에 참석하십시오. 마음을 열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공과가 언제 그렇게 가르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전을 가져오고 질문을 하며

배우는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공과에 더욱 많이 참여할 때 여러분은 공과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풍성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저는 똑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차례 배운 후에야 성신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게 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며 간증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15~17)

아나 에스코바 엠

엘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쿠즈카틀렌 스테이크 부에나 비스타 와드

공과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갖기 위해 저는 제가 마치 교사인 것처럼 공과 준비를 합니다. 저는 적극적인 질

문과 대답을 통해 공과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제 생활이 공과에서 배운 것과 일치하는지 평가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코로 우체 케빈

나이지리아 아바 스테이크

오그보르 힐 탐 와드

일부 주제들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과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은 공과 주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질문이 생기고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더욱 편안해지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며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영원한 원리입니다.

주일학교 14~18반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테이크

로테르담 제2와드

저는 반에서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일학교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

다. 교회에 관해 좀더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때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면, 누군가를 도와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사나 다 콘세티 오 리바스

브라질 소 호스 도스 핀하이스 스테이크

자심 와드

공과에 더욱 잘 참여하기 위해 저는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 대답을 경청하며 제가 항상 주님의 영을 지니는 데 각 공과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공과반을 떠날 때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영이 고양되어 있곤 합니다.

엘리안느 브히초이

프랑스 릴 스테이크

빌레뉴브 다스크 와드

같은 공과들을 항상 듣는다는 것은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 장로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너희에 관한 나의 뜻[을]... 내게서 배워 알지어다."(교리와 성약 58:1)

하이누이 피리투아

타이티 파아 스테이크

오래무 와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



오코로 우체 케빈



로테르담 제2와드 주일학교 반



호사나 다 콘세티 오 리바스



엘리안느 브히초이



하이누이 피리투아



보이스 유 느완크파



다빈 로아 장로

니다. 기도는 성신이 우리와 우리의 교사 모두에게 임재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또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토론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입니다. 간증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간증을 하는 것은 모두로 하여금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야델파 이이 텍슨
필리핀 모롱 리잘 지방부
모롱 지부

저는 어느 주제를 토론하던 거기에는 늘 새로운 복음 지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주제를 얼마나 자주 배우든 관계없이 주님은 늘 그 공과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이 가르치실 무언가를 갖고 계십니다. 공과를 경청할 때 우리는 자주 반복되는 주제 가운데서 복음이 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문경의 예언의 말씀들에 나오는 이방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성경, 우리가 이미 성경을 가졌으니" (니파이이서 29:3) 우리는 "저들이 학식을 얻으매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 (니파이이서 9:28)는 사람들 같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많으십니다.

보이스 유 느완크파
나이지리아 아바 스테이크
옥푸 우무오보 로드 와드

공과에 참여하고, 경전을 지참하며, 의견을 발표하고, 더 배우겠다는 소망을 늘 갖는 것이 주일학교에 좀더 흥미를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물문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경전을 읽고 또 읽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게 됩니다.

다빈 로아 장로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중앙 선교부

여러분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2000년 6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Liahona, 50 East North Temple Street, UT 84150-3223. e-mail: CUR-IMag@ldschurch.org. 응답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합니다. 사진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응답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신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비회원인 제 친구는 제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로 하여금 선교 사업이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메시지

그분의 이름을 공경함

김정현 장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애굽기 20:7, 시편 118:26, 모사이야서 5:8~9, 엘마서 5:28 참조)



알 발 존슨 사진 촬영, 글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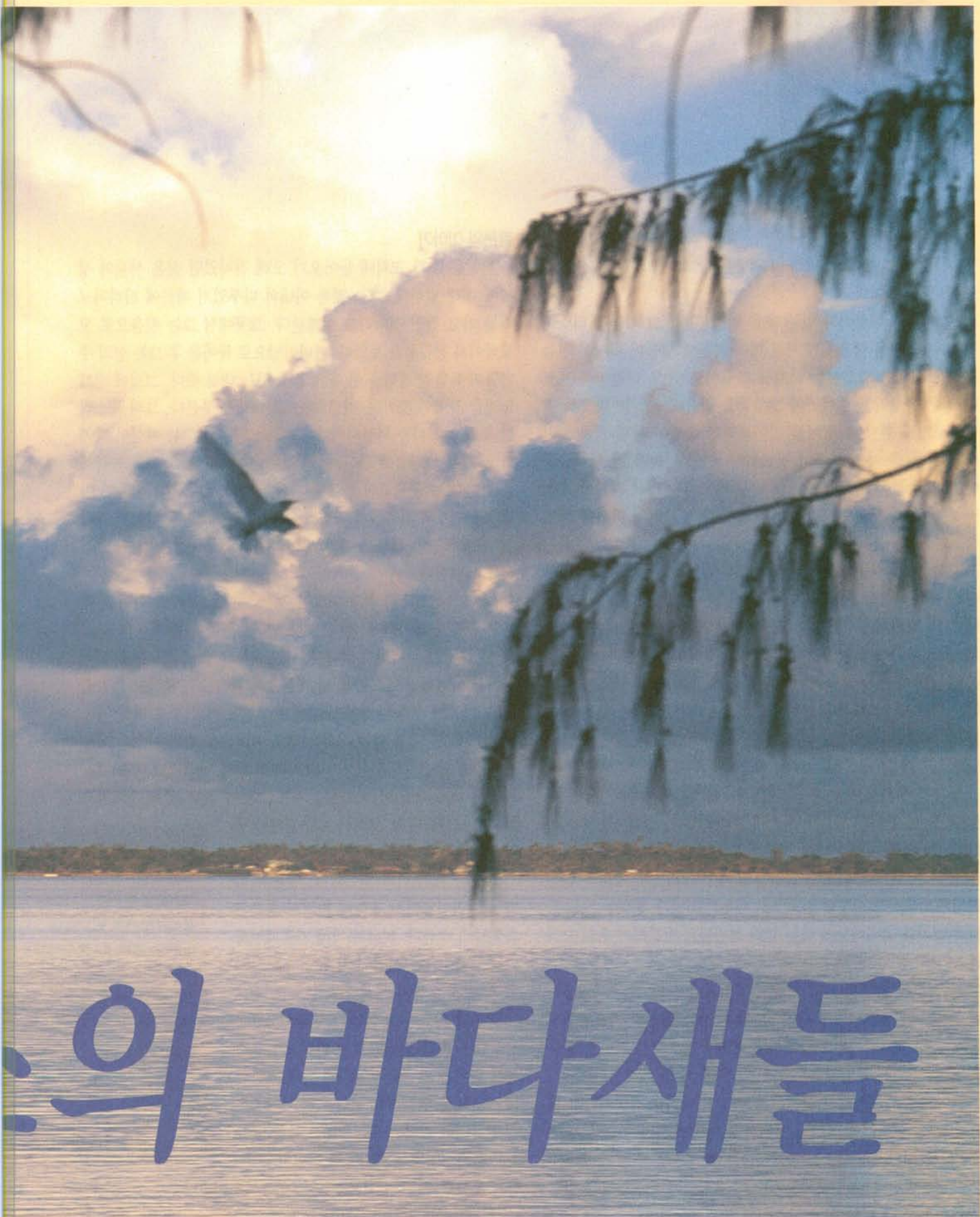
키리바스에서는 희미한 빛 속에서 하늘과 바다를 구별하기 어려운 때들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뒤섞이면 하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또 하나는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같은 보트 선착장의 이른 아침이 그러한 시간이다. 별들은 사라졌지만 새벽녘의 동쪽 수평선은 여전히 희미하기만 하다. 키리바스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환초(초호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산호섬)인 타라와에는 몇 안 되는 전기불도 꺼진 지 오래 되었다. 그리고 5미터짜리 소형배는 타라와의 초호를 움직여 주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침묵에 둘러싸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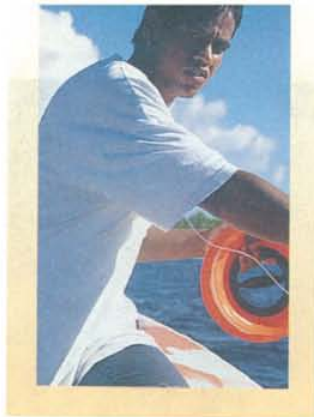
배의 키 부분에서는 튼야가 뚫어지게 앞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열 여섯 살짜리 친구이자 워드 회원인 모라테카이 아타이아는 뱃머리에서 물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목적지인 아바이앙 환초는 가는 데 여러 시간 걸리는 곳이지만 그들은 조심했다. 모래톱이 좌우로 넓혀지고 있어서 초호의 입구에 있는 암초를 통과할 때까지 튼야는 보트를 안전하게 잘 몰아야 한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속도를 올려서 아바이앙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다.

또한 튼야는 바다새들의 무리가 파도 위로 급강하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그때에는 완전히 밝아져서 빛나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새들의 검은 윤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바이앙으로 여행하는 목적은 고기잡이가 아니지만 그는 타고난 어부라서 물 속에 낚시줄을 던져 놓지 않을 수 없었다. 타라와와 아바이앙 사이에는 다랑어

키리바스



의 바다새들



때가 해엄처 다니므로 만일 한 때를 만난다면 길을 따라 그 귀중한 물고기를 몇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새들은 다랑어가 있는 곳을 알려 준다. 그 새들은 다랑어가 먹는 똑같은 작은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새들이 먹이가 있는 곳을 알아내면 그곳에는 때때로 다랑어도 있다. 다랑어들은 보다 작은 물고기를 쫓아가며 그것들을 잡으려다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기도 한다. 다랑어를 잡아채려면 숙련된 눈과 키를 노련하게 잡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인조 미끼를 단 낚시줄을 던진 후 충분히 빠르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는 않게 되감아 올리면 은색과 푸른색과 노란색을 띤 커다란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끌려나온다.

오늘 아침에는 그곳에 다랑어들이 없었다. 튠야와 모라테카이가 아바이앙의 초호로 배를 몰고 들어갔을 때는 거의 점심 때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모라테카이가 아바이앙의 암초 부근에서 잡았던 가다랭이 한 마리만 있었다. 해안 가까운 곳에서 모라테카이는 따뜻한 물로 뛰어내려 보트를 물이 얇은 쪽으로 더 가까이 잡아당겼다. 그 다음 튠야가 닻을 내리고 두 사람은 야자잎으로 뒤덮인 해변의 하얀 모래밭을 걸어 갔다.

풍경이 푸른색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들은 목적인 마네아바(집회소)로 향하는 친숙한 오솔길을 따라갔다. 집회소는 탐톤과 타카 루아타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부부의 집에서 가까운 개척지에 있었다. 이 마네아바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타본테베케 아바이앙 지부의 집회소로 사용되고 있다. 튠야는 오늘 탐톤과 타카와 아바이앙의 다른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모라테카이를 데리고 왔다.

튠야(그의 성명은 로투 바리트 튠야지만 섬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름으로만 알려진다.)는 한때 그들의 신권 지도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얼마 전에 그는 지방부장으로서는 그들을 방문했다. 이제 그는 해임되었으므로 친구로서 방문한 것이다.

튠야와 모라테카이가 잡아온 물고기 한 마리는 점심거리가 되었다. 타카는 그것을 모닥불 위에서 꼬챙이에 꿰어 구웠다. 섬의 주민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기므로 물고기와 밥과 코코넛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식사를 탐톤이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으로 잔치가 되는 것이다.

탐톤의 이야기

탐톤은 그가 교회에 들어오기 오래 전이었던 젊은 시절의 생활에 대해 말한다. 그는 젊은 아내와 다투었기 때문에 타라와로 배를 타고 갔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오토바이와 전깃불을 보았다. 아바이앙으로 돌아온 후 그는 섬의 주민들이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흔히 하는 대로 했다. 그것에 대해 노래를 작곡한 것이다. 지금 그는 그 노래를 부른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가사는 서정적이다. 그 곡을 끝내자 그는 자신이 작곡한 또 다른 노래를 부른다. 이번 것은 “와서 나를 좇으라”(누가복음 18:22)는 구세주의 권유에 대한 것이다. 탐톤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랐고 또 어떻게 따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오로지 구세주를 따름으로써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노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르는 것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물질을 통과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탐톤의 여행도 그와 같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타라와에서 아바이앙으로 왔을 때 개신교의 집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륙은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바타(폴로 지은 전통적인 가옥)를 지을 땅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없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복음을 가르쳤고 저는 그들이 참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1984년의 일이었다. 탐톤과 타카는 아바이앙에서 교회에 가입한 최초의 회원들에 속한다. 의심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즉시 선교사들이 가르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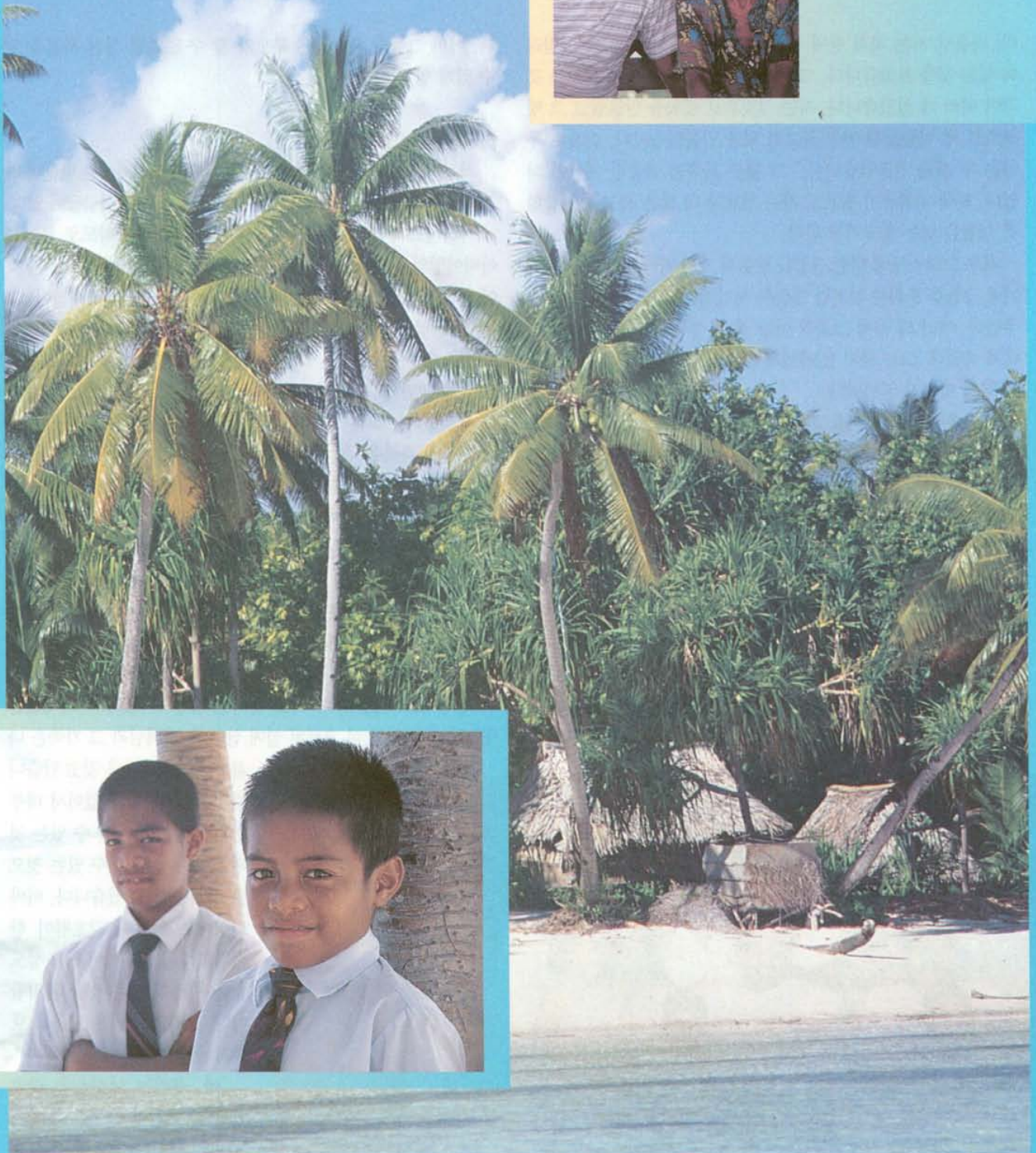
탐톤과 타카는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축복 받았다고 느낀다. 여러 해 전에 탐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커다란 물고기 덩어리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한 개를 만들려면 바닷속으로 수많은 돌을 날라 가야 했다.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단지 조그만 카누 한 척과 도와줄 아들들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열심히 기도했습니

키리바스의 성도들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하게 축복 받았다고 느낀다. 왼쪽 위: 모라테카이 아타이아. 오른쪽: 로투 튠야 감독의 아들인 조슈아와 제이 튠야. 앞쪽.



탐론과 타카 루아타는
아바이암에서 최초로
교회에 들어온 회원들에
속한다.



다. 다음날 저는 저희 땅에 부유물(파편들이 얽힌 것)이 떠밀려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유물 속에는 커다란 스티로폼 조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었고 그 뗏목으로 제 아들과 저는 물고기 뗏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뗏은 가족의 귀중한 재산이 되었다. 뗏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들은 남은 물고기를 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탐톤과 그의 가족들이 어렵던 시기에 그들을 도와준 것처럼 슬픔의 시기에는 또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여러 해 전에 그들의 아들 중 한 명이 문어를 잡으러 갔다가 죽었다. 그는 불과 22세였지만 바다 한 가운데서 혼자 있을 때 심장 마비가 일어났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탐톤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곧 그의 눈은 밝아졌다. “우리는 아들을 우리에게 인봉하고 싶습니다.” 튜야가 지방부장으로 있을 때 그는 탐톤과 타카에게 신권과 성전에서 가족을 영원히 함께 인봉하는 그 권세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은 성전에 가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돈이 없어 성전 방문은 고사하고 아직 성전을 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톤과 타카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튜야는 만일 그들이 성전에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을 위해 분명히 성전 사업을 반드시 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도록 격려한

다. 아마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할 수 없었던 성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리타카의 이야기

식사와 노래와 이야기가 끝나자 튜야와 모라테카이는 탐톤과 타카의 집을 떠났다. 섬에는 그들이 방문해야 할 다른 사람들이 있다.

키리바스의 성도들은 신권 소유자를 무척 존경하므로 튜야는 아바이앙의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다. 그가 아바이앙으로 온 것이 번덕이 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곧 명백해진다. 그는 그가 낚았던 다랑어 중 하나처럼 기도에 의해 낚이어서듯이 그 섬으로 이끌려 왔다. 그는 자신이 그저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고기를 잡으러 갈 구실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왔던 진정한 이유는 아리타카 모우투에게 신권 축복을 주는 것이었다.

모우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들어온 이래로 저는 신권 축복에 의지해 왔어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리가 아플 때마다 축복을 부탁하는데 그러면 항상 괜찮아져요. 오늘 아침에 저는 누군가 와서 제게 축복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축복을 해줄 제 남편이 섬에 없었거든요.” 그녀는 튜야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것이 형제님이 오신 이유예요.”

“항상 그와 같습니다.”라고 튜야는 말한다. “모우투 자매님은 특별한 것이 없는 이 고립된 섬에 삽니다. 자매님과 그 가족은 나

름대로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것과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아바이앙에는 의사나 간호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의 성도들은 주님께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살피 주십니다.”

“예, 우리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온 후에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가족과 함께 한 튜야 감독. 그는 9년 동안 지방부장으로 봉사했다. 지방부가 스테이크로 재조직되었을 때 그는 에이타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예, 우리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온 후에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전만큼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모우투 자매의 말이다.



전만큼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모우투 자매의 말이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그녀의 가족을 만나러 왔을 때 아리타카는 도망하려고 하거나 선교사들을 쫓아내려고 했다. “우리 목사님이 거짓 예언자가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선교사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그녀는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나 한 번은 존스라는 이름을 가진 장로가 우리를 방문하러 왔어요.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는 집밖에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 선교사들에게 저를 용서하고 가족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장로들이 했던 한 가지 일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들은 제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가르친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그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을까? “그들이 가져온 영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에 관한 가르침,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타라와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튠야는 조수 때문에 타라와의 초호 밖으로 물이 너무 많이 빠져 나가서 배 밖의 모터가 돌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얕아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모라테카이와 함께 떠나기 전에 아리타카에게 그녀가 기도했던 신권 축복을 주었다.

튠야의 이야기

이키리바스(키리바스 사람들)들은 천성적으로 관대하고 친절하다. 튠야는 그 두 가지 특성을 곱으로 가지고 있다. 그는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고 있거나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다. 타라와의 남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인 쿠리아에서 조부모에게 양육된 튠야는 열서너 살까지는 키리바스의 수도에 온 적이 없었다. 그는 전통적인 기술을 배웠지만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훌륭한 중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라와로 왔는데 그곳에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포함하여 몇 개의 사립 학교가 있었다.

간단하게 살펴본 키리바스

인구: 85,500명

크기: 717평방 킬로미터의 육지와 3,550,000평방 킬로미터의 바다

역사: 약 3,000년 전에 미크로네시아인의 선조들이 이주해 옴. 후에 폴리네시아인들과 연합함. 대영 제국의 토마스 길버트 선장이 1788년에 일단의 환초를 지나가면서 길버트 제도라고 명명함. (키리바스는 길버트의 자국식 발음임) 1892년에 대영제국은 길버트 제도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후에 식민지로 삼음. 일본에 점령되었다가 세계 제2차 대전 동안 미군이 탈취함.

대영연방의 하나로서 1979년 7월 12일에 독립함.

교회 회원수: 5,557명

교회 조직: 10개의 와드와 2개의 지부로 이루어진 스테이크 1; 9개의 지부를 가진 지방부 1; 피지 수바 선교부의 일부



오른쪽: 타라와의 전통적인 바다. 배경: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 타라와 아티에우 지부의 회원들. 왼쪽 아래: 튜야 감독의 딸인 아키테티 하티에.

그의 할머니는 그를 종교 학교에 등록시켰다. 튜야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학교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축구를 하다가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습니다. 저는 타라와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불행히도 전통 의학을 사용하던 한 여인이 제 엉덩이를 마사지해서 낮게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을 망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엉덩이가 감염되어 저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에게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할머니는 타라와에 있는 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침대를 둘러싼 커튼 밖에서 그들이 의사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저 아이의 엉덩이에 생긴 염증은 너무 심합니다. 이제 전신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휴! 그들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기독교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제 목숨을 구해 주신다면 저는 선교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을 섬기는 데 제 온 생애를 바칠 것입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있던 것은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에서 보는 것 같은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은 말일성도 교회가 키리바스에 세워지기 전이었던 1972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길게 누워서 일어나 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튜야는 심하게 절뚝거리는 상태로 퇴원했지만 살았습니다.

“퇴원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개신교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카스라 불리우는 다른 학

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1974년에 저를 그곳에 등록시켰습니다. 그 해에 피지의 말일성도 선교부장이었던 에드 데이비스가 통가에 있는 리아호나 고등학교에 입학시킬 10명의 학생을 선발하러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고

등학교 입학은 엄청나게 어려운 기회였습니다. 이전에 단지 두 그룹만이 진학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생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 년 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될 거라는 희망은 별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발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왕복 항공권을 살 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어떻게 그 돈을 구하시겠어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라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중증이어서 일을 할 수 없었지만 ‘돈을 구해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바느질일을 하셔서 얼마간의 돈을 모아 두셨습니다. 삼촌과 다른 친척들도 도와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 돈을 다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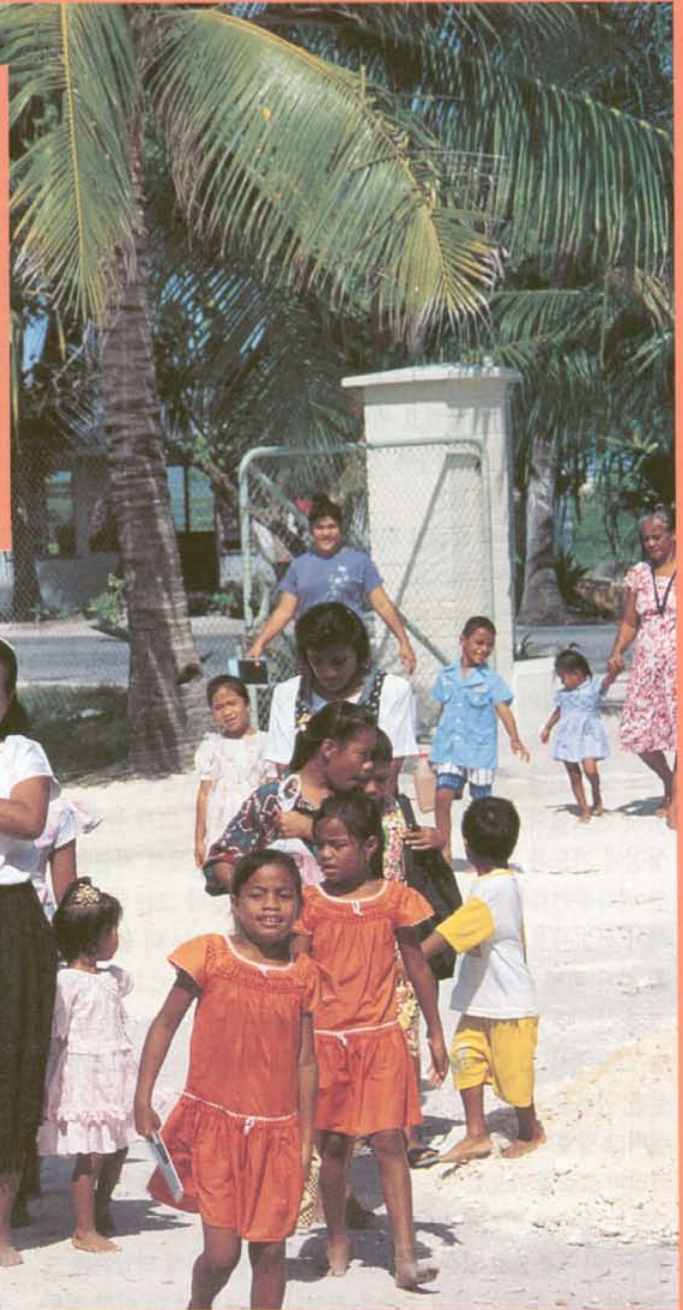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1975년에 리아호나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교내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깨끗했고 학교도 깨끗했으며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것이 물론이 운영되는 교회 학교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물론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첫번째 일요일에 저는 선교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제 선생님들 중 한 분인 그랜트 휴렛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주 흥분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고쳐 주신다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분께 약속했는데 제가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는 선교사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1975년 6월 22일에 우리 그룹에서 첫번째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왜 그렇게 빨리 교회에 가입하는지를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르친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었어. 나는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확실하게 느꼈거든.’

“제가 침례 받은 두 달 후 키리바스 출신의 학생들은 그곳에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7세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제가 너무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명의 젊은이가 키리바스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1975년말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저는 그들에게 저의 부모님께 복음을 가





왼쪽: 툰야 감독의 어머니인 아키에티가 손자인 아타이아 리바우에와 함께. 아키에티는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은 후 교회에 가입했다.

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들에게 제 간증을 전하는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할머니인 테브웨브웨니카이 리바우에 툐야는 가족 중에서 최초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978년에 학교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때 저는 제 미래의 아내인 마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제가 선교사로 봉사한 다음 하와이에서 만나 성전에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와이에 갈지 또 선교 사업의 재정은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툐야는 다음 몇 년간에 걸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통가에 머물면서 교회를 위해 번역했다.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가족이 그가 뉴질랜드 성전에 가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1979년에 그곳에서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 후 몇 달이 되지 않아 그는 키리바스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는 더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에 입학했다.(그는 키리바스 출신으로 최초로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마이는 결혼했다.(키리바스 출신으로 최초로 성전 인봉을 받은 부부이다.) 피지 공항에서 지역 회장인 존 소넨버그 장로와의 만남으로 인해 그는 미국에서 직장을 찾지 않고 키리바스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며칠 후 소넨버그 장로는 툐야를 키리바스의 지방부장으로 불렀다. 툐야 부장은 교회에서의 직분으로 인해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엉덩이 복위 수술을 받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고 그와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빨리 걷는다.

타라와에서 지방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툐야는 또한 그랜트 휴렛과 그의 아내 팻의 선교 사업 결과였던 말일성도 고등학교인 모로나이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휴렛 부부가 1976년에 타라와로 왔을 때 아카스 학교는 재정적인 문제와 지도력 문제를 갖고 있었다. 휴렛 부부는 지도력을 보충했고 교회에 그 학교를 구입할 것을 청원했다. 결국 교회는 그것에 동의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내의 사람들에게서 얼마간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적절한 곳에 대리인을 두고 계셨다. 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교회 회원 바티카 툐은 여러 명의 핵심적인 국회 의

원들에게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키리바스 사람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교회는 그 학교를 구입했고 모로나이 지역 학교라고 불렀다.(현재의 모로나이 고등학교)

그 학교는 실제로 키리바스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교회에도 똑 같이 축복임이 입증되었다. 툐야는 이렇게 말한다. “모로나이 고등학교는 키리바스에서 귀감이 되는 학교로 여겨집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기술이 있으며 높은 도덕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책을 맡기기 위해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도덕과 표준과 가족에 중심을 두는 것에 대해 귀감이 되는 교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키리바스에서 과거에 그러한 명성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 “교회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우리는 비기독교인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툐야의 말이다. “우리는 의회의 청문회에서 질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혼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강한 간증을 지니고 복음을 나누기를 열망하는 새로운 말일성도 세대를 교육하고 있다. 그것이 키리바스에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또 다른 이유는 키리바스의 말일성도들의 생활에서 빛나는 복음의 빛이다. 툐야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높은 표준과 강한 가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 키리바스의 교회 회원은 50명에서 100명 사이였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칠 때는 5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000명에 육박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구의 약 6퍼센트입니다. 불과 20년 후에 교회는 키리바스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툐야가 9년 동안 지방부장으로 봉사한 후 1996년에 해임되었을 때 그 지방부는 스테이크로 재조직되었고 그는 에이타 와드(현재는 에이타 제1와드)의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이제 일몰 때가 다 되었다. 툐야의 보트 뱃머리 저쪽 어딘가에 타라와가 있다. 제비갈매기와 검은제비갈매기 몇 마리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그들을 지나 날아간다. 툐야의 눈이 본능적으로 그 새들을 좇아간다. 그 새들은 땅거미가 질 때에는 곧바로 육지로 날아간다. 그들을 따라가면 뱃사람들은 항상 집을 찾을 수 있다. 새들의 뒤쪽에서 하늘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바다도 마찬가지로 황금빛으로 물든다. 그 빛이 툐야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를 비

추어 준다. 그의 발치에 있는 커다란 쿨러 속에는 아바이앙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다랑어 4마리가 들어 있다.

“이곳의 교회 회원들은 저 바닷새들과 같습니다. 위대한 어부께서 잡으실 물고기가 많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선교사들에게 보여 주는 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 줍니다.” 툐야의 말이다.

그와 동시에 키리바스의 교회 회원들 역시 복음의 그물로 모아진 사람들에 속한다. 때때로 그들이 천국의 기쁨에 대한 즐거운 기대로 높이 치솟는 때가 있다면 세상의 경험 한가운데로 급강하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빛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뛰어난 신앙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짧은 순간 바다와 하늘은 하나가 된다. □



위쪽: 본리키 지부 초등학교.

아래 전경: 신권 소유자들이 발전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있다. (왼쪽부터): 테니아 케이 테니아와 딸 테루베타카를 안고 있는 피터 비라티 그리고 티토 비라.

뒤쪽 배경: 밤이 되자 육지로 돌아오는 바닷새들.





그녀는 나의 자매임

스베틀라나 누츠도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용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허버트, 리아호나, 1995년 7월호, 59쪽에서 인용)

우 크라이나 도네츠크 선교부 소속 전임 선교사인 나는 효과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비결 중 하나가 동반자간에 우정을 쌓고 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느 한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동반자와 화합하는 힘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었다. 사탄은 우리 관계에 작은 틈이 생긴 것을 찾아냈고, 그 틈을 점점 골짜기처럼 만들어 나갔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부름 받은 우리였지만, 서로를 향해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다. 주님의 사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영의 도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행복할 리가 없었다. 우리 둘은 변화되고 싶었지만, 진지한 회개를 통해 마음을 누그러뜨리질 못했다.

내 영혼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아침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동반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의 약점과 교만을 증오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 놓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움은 저희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9~10)

두 달 만에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끝이 났지만, 이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기억은 늘 머리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영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드렸다.

그 자매와 나는 여전히 같은 도시에서 봉사했다. 우리는 대회를 비롯한 여러 활동에서 꽤 자주 만났지만, 항상 서로를 의면했다.

어느 날 지역 대회를 하면서 나는 용서의 은사를 온전히 받아

들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나는 지구 책임자가 폐회 기도를 할 때 성신의 권세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전 동반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온화함이 전신을 감쌌다. 머리와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그녀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온전해지려 노력하는**

중이다! 그녀는 나의 자매이고, 우리는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그녀를 용서했는데 왜 내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난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또 다시 가슴에서 전달되는 느낌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 맞아, 나는 그녀를 사랑해! 우리는 함께 변화 될 거야!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였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내 눈 속의 진실만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나는 단 둘이 좀 볼 수 있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러고는 그간의 고통과 기도와 그 날 받았던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과 후련함의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날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요.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자매님이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았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창세기 33:4)

선교 사업을 마치고 러시아 사라토프에 있는 집으로 귀환한 나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아 일하면서, 우리 지부 자매님들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매님들도 내가 이전에 그랬듯이 이해심도 부족하고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서로를 대하였다. 나는 늘 내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했을 때 주어졌던 기쁨과 위안을 그들도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 (이더서 12:27) □

가족 재정 지침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1915~1994)

십이사도 장원회

가족 사진 촬영: 제드 클러크

저는 언젠가 잘 어울리는 젊은 연인 한 쌍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 내로 결혼할 사이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 사건을 앞둔 설렘과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들의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학 교육을 받았고 좋은 집안 출신이며 문화적 배경도 훌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의 개성과 장래 계획과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두 사람의 옆에는 이미 영원한 토대 위에서 적절히 출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접견을 하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그들의 대답 한 가지가 마음을 쓰이게 했습니다. 저의 염려와 제언이 그들로 하여금 다가올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결혼하면 금전 관리는 누가 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자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님이 하시겠죠.” 그러자 남편 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선 아직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답에 매우 놀랐습니다.

결혼 생활과 가정사에 있어서 금전 관리와 재정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엄청나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는 전체 이혼 사건의 89%가 그 원인이 돈 문제를 놓고 벌인 언쟁과 비난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75% 정도가 금전 문

21.19
21.32

B
B
B

6171\$

14.96
0000
4.95 TX I
0.38 TX I
5.33 IL
10.00 CA
4.67 CO
001
•45 045



제에 대한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 상담가들에 의하면, 다섯 가족 가운데 네 가족이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결혼 생활의 비극은 단순히 금전 부족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재정 관리를 잘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남편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까 하는 문제보다는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자신이(혹은 남편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에 더 생각을 모으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재정 관리는 돈을 벌어드는 능력에 선행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성과 약혼했다고 할지라도, 그녀에게 재정 관리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간의 재정 관리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게 되면, 그들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결정 과정에 동반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금전상의 걱정거리와 다툼이 팽배한 곳에서는 가정의 평화, 만족, 사랑 및 안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재정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활을 돌이켜보고 뉘우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적절한 재정 관리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개인과 가정의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 12개 항목이 여러분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정직한 십일조를 낸. 모든 말일성도 가정에서의 성공적인 재정 관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제일 임무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중요한 복음 원리에 대해 더욱 전념하게 되고 재정 관리를 잘못할 가능성 또한 줄어듭니다. 주님께서 매달 확인을 하러 오시진 않지만, 그분께 신속히 십일조를 드리는 일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물리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좀더 정

직하게 지내도록 하는 데 가르침이 됩니다.

2 돈이 자신을 관리하기 전에 먼저 이를 관리하는 법을 배움. 신부가 될 사람은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배우자가 재정 관리 능력이 있는가? 자기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아는가?” 이러한 것들은 “그가 돈을 많이 버는가?”라고 자문해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돈과 관련된 마음의 평화는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보다는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데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부부는 끊임없이 재정에 대해 새로운 태도와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요컨대 동반자적 관계는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정 경제의 관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힘이나 권위의 원천으로 어느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금전 관리를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불평등을 가져오며, 온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반대로, 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가정 경제 관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면 이는 중요한 의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3 금전 문제에 있어서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을 개발함. 금전과 관련해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회계학에서 가르치는 여러 과목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결혼 전에 자신의 부모님과 살면서 익숙해진 소비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개인적 소비욕보다는 배우자와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협조와 사랑의 정신으로 금전을 관리하는 기술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가 빔을 내 월부 구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젊은 소비자층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광고 가운데 돈을 갠 것의 중압감에 초점을 맞추거나 빔을 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것이 어느 만큼 힘든 일인지를 언급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는 이자에 대

해선 더더욱 말이 없습니다.

4 예산을 세워 활용함. 모든 가정은 예산을 세워 매달 수입과 가족 예산의 각 항목별로 지출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사거나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기타 주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피하십시오. 소비재 구입과 여행 경비는 현금으로 충당하십시오. 할부 구입은 피하고, 신용 카드는 신중히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기본적으로 편리함이나 신분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경솔하거나 무절제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빚을 더 떠맡게 되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품질이 좋은 새 제품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저축하기 전까지는 중고품을 쓰도록 하십시오.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은 결국 돈이 더 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입의 일정 분을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유사시에 대비해 은행에 최소한 석 달간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금을 저축해 두십시오. 모든 말일성도 가정은 신고 기간에 맞추어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 불편한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를 무시하거나 피해다니는 말일성도는 그로 인해 오는 심리적 절망감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일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파산은 피해야 합니다. 파산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법률 및 재정 관련 상담을 거친 다음에만 행해져야 합니다.

5 가족들에게 어려서부터 노동과 수입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침.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세기 3:19)

부 채 상환 계획표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이에 몇 개의 칸을 표시한다. 왼쪽 첫 번째 칸에 이번 달을 기점으로 각 달을 표시한다. 다음 칸 제일 위쪽에 제일 먼저 빚을 갚고자 하는 채권자 이름을 쓴다. 아마 이자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경우나 가장 빨리 빚을 갚아야 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채권자에게 매월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록한다. 다음 칸의 상단에는 두 번째로 빚을 갚고자 하는 채권자 이름을 적고 매월 지불액을 기록한다. 첫 번째 채권자에게 모두 상환한 다음, 첫 번째 채권자에게 지불하던 월별 금액을 두 번째 채권자에게 내는 월지불액에 가산한다. 전체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한다.

부채 상환 계획표

	부채 1	부채 2	부채 3	부채 4	총 상환액
4월	10	20	30	40	100
5월	10	20	30	40	100
6월	10	20	30	40	100
7월	10	20	30	40	100
8월		30	30	40	100
9월		30	30	40	100
10월		30	30	40	100
11월			60	40	100
12월			60	40	100
1월			60	40	100
2월				100	100
3월				100	100
4월					

라는 말씀은 진부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복지의 기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어 왔고, 그에 대한 의견이나 권고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봉사나 적절한 집안 일 등을 통해 자신이 쓸 돈을 직접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나 다른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주는 일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자신의 집에 매주 혹은 매월 자동적으로 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6 **자녀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침.**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돈에 영향을 줄 금전상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며, 분별 없는 낭비로 인

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히 "돈을 아껴야지"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려면, 자전거를 사려면, 인형집을 사려면, 혼수감을 사려면, 혹은 자동차를 사려면 돈을 아껴야지."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으로 인정한 목표를 위해 다함께 저축을 할 때 가족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녀에게 중대 목표를 위해 저축을 하게 할 때 가족이 결속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목표액을 다 모으면 우리가 전체 목표액에서 모자르는 나머지 부분을 채워 주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무슨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훌륭한 자극제가 됩니다.

7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가족 복지에 기여하도록 가르침.** 자녀는 성장하면서 가족의 재정 상태, 예산, 투자 목표 및 가족

예 산은 여러분이 지출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산**은 세운다. 수입과 지출에 균형을 맞추고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한다.



예산		
	예상 수입	실제 수입
수입		
임금/급료(세금 공제후)		
기타 수입		
총 수입		
지출		
교회 헌금		
저축		
식비		
주택할부금 혹은 집세		
공공 요금		
교통비		
채무 상환액		
보험료		
의료비		
피복비		
기타		
총 지출		
지출 후 수입		

내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가족의 목표에 맞거나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가정의 밤 시간에 오붓하게 모여 앉아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이나 딸 또는 형제나 자매에게 각자가 매월 부담할 액수 등을 이야기하면서 금전적으로나 영적으로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매달 이러한 일이 진행될 때 그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은 부모와 형제들 모두에게서 지지 받는 자랑스런 "우리"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8 교육은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함. 실업 학교와 기술 교육을 포함해 가능하다면 정식 교육은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제대로 된 투자입니다. 자신이 받게 될 평생 수입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을 더 받기 위해 들이는 시간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야간 학교나 통신 과정을 이용해 좀더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생각보다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십시오. 간단한 가정 용품 수리 기술이나 자동차 정비술 등이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업 기간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시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는 데도 가만히 앉아 "나에게 맞는 일"이 주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 집을 갖기 위해 일함. 집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단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사도록 하십시오. 사는 동안 집을 잘 손질하고 전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부가가치가 생겨 가족의 필요에 맞춰 좀 더 알맞은 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10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 의료 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생명 보험 등은 충분히 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사고, 사망과 관련해 치르는 비용은 너무 크므로 보험에 들지 않은 가족은 그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오랫동안 안을 수 있습니다.

11 가정 경제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에 대해 이해함. 인플레이션은 평균 임금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계속 잠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어난 급료가 곧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뜻이며, 이것이 분에 넘친 물건 구입이나 추가로 빚을 지는 것에 대해 어떤 변명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은행 저축 외에 재정 안정을 위해 혹은 신체적 장애를 겪거나 퇴직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현명한 투자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나 벼락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 같은 것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12 식량 비축 및 비상 대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기본 식량 비축 및 비상용품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위해 빚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식량 비축에 관한 현명치 못한 상업용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년 소채원에 무엇인가를 심어 경작하는 일은 식량 구입에 드는 예산 절감을 포함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여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줄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언에 모든 답이 담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현명한 금전 관리를 위한 이 기본 지침들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재정 관리가 개인의 복리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길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즐기치게 일해야 합니다. 시간과 이자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편이 되는 바로 그때가 재정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돈은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는데 있어 수단으로써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모하고 이기적으로 돈을 사용할 때 우리는 재정적인 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전 관리에 개인과 가족이 관여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

1975년 4월 연차 대회 복지 모임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함.

안식일의 가족 시간

카렌 에프 처치

그림: 베스 휘터커

남편과 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유(“대관장단 서한”,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참조)대로 안식일에 복음 공부하는 시간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겁고 건설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그 활동 중의 일부가 나와 있다.

☞ 자녀 중 한 명에게 간단한 말씀을 준비했다가 교회 모임이 끝난 후에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말씀 내용은 그날 교회에서 배운 공과 중에 나오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 찬송가 부르기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곡 배우기, 제일 좋아하는 곡 부르기, 혹은 귀에 익은 곡을 알아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조부모를 비롯한 가족, 선교사, 또는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를 쓴다.

☞ 다른 가족들에게도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한 다음 각 가족에게 용편을 사용하여 전하는 이야기, 말씀, 기타 노래 한두 곡을 준비해 오도록 부탁한다.

☞ 자녀들이 종교적인 주제나 이야기에 관한 즉흥 연극을 할 수 있게 준비시킨다.

☞ 경전, 교회 책자, 리아호나 등을 읽는다.

☞ 부모가 자녀와 접견을 한다.

☞ 교회 관련 게임을 한다.

☞ 친구나 이웃에게 줄 카드 혹은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우리는 자녀를 활동에 많이 참여시키면 시킬수록 그들이 안식일에 함께 복음 공부하는 시간을 손꼽아 고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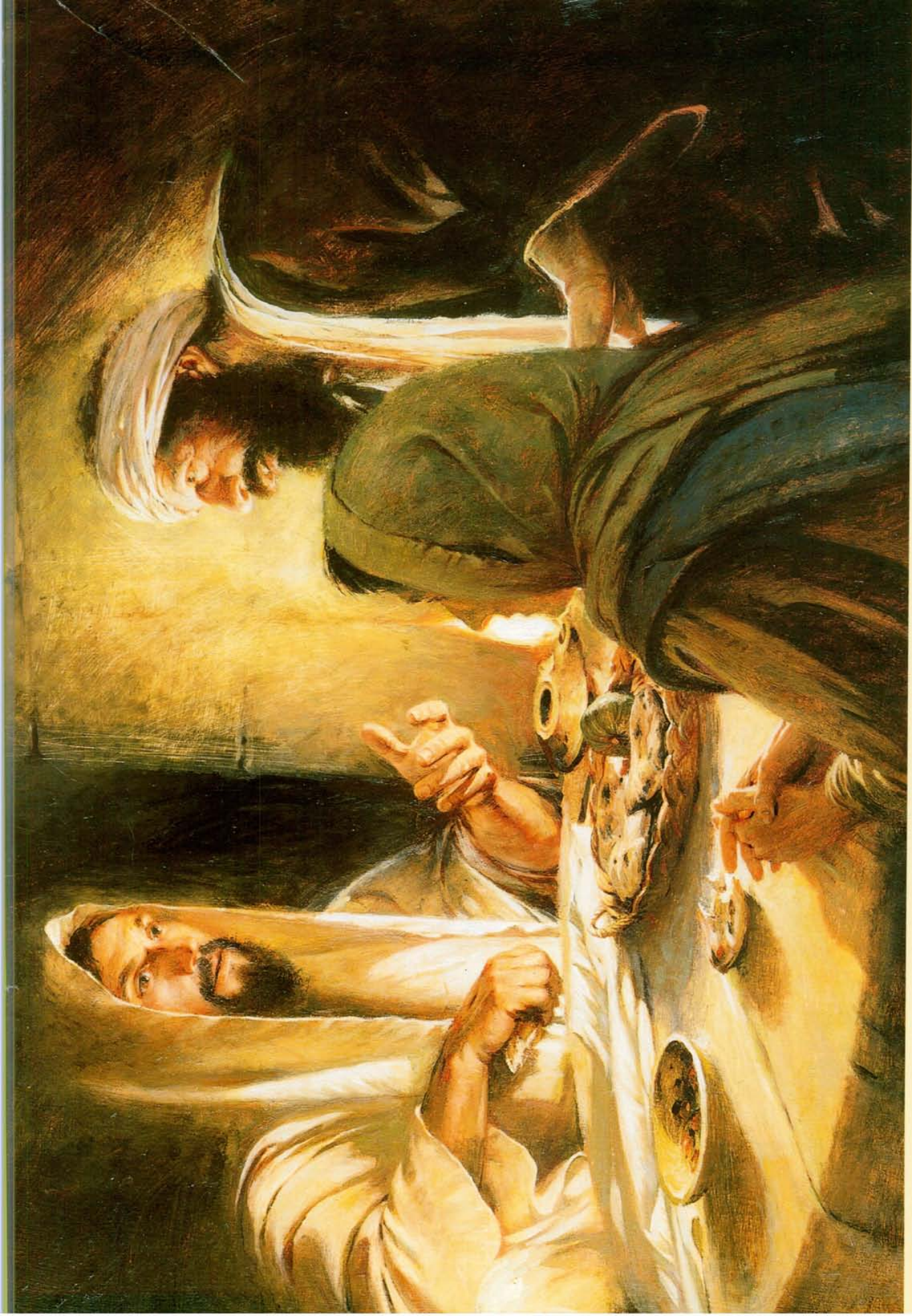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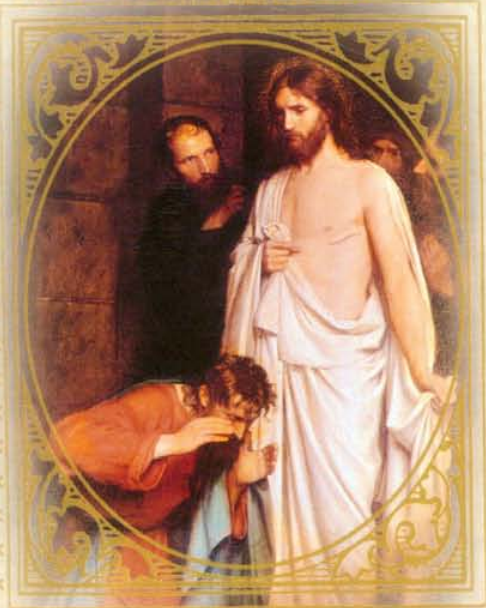


그림: 윌터 레인, 엠마오에 계신 그리스도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24:30-31)



팔 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요.”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6~29 참조)